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⑩ 보리달마(菩提達摩) · 혜가(慧可)

▶ 한줄 요약
달마의 선사상은 사상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선에 본격적으로 '불성'과 '반야'를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선에 본격적으로 불성 · 반야 결합

남북조시기에 남방은 의리(義理)를, 북방은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학풍에 따라 북조(北朝)에서 선정이 유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불타선사(佛陀禪師)와 승조(僧稠),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승실(僧實)이라고 하겠다. 도선의 〈속고승전〉 권20에는 "북제(北齊)의 하북(河北)에서 승조가 홀로 명망이 높았고, 북주(北周)의 관중(關中)에서 승실이 교화하여 명성이 높이 올랐다. 〈중략〉 그러므로 중원(中原)의 정원(定苑, 定學)에 강령(綱領)을 세우고 전개하게 한 것이 이 두 현자이고, 그 족적을 이어 등불을 전하며 교화의 흐름이 쉬지 않게 된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언급되는 승조는 북위의 효명제(孝明帝)와 효무제(孝武帝), 그리고 북제(北齊)의 문선제(文宣帝)로부터 귀의를 받았고, 승실은 북위의 효문제(孝文帝)의 귀의를 받았으며, 북주에 이르러서는 삼장(三藏)의 지위에 올랐다. 북제나 북주 모두 승관제(僧官制)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황제의 귀의를 받았다는 것은 북조의 불교를 장악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안세고(安世高)의 선수학(禪數學)을 계승한 정학(定學)이 북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리달마(菩提達摩)와 그의 법을 계승한 혜가(慧可)의 선사상이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타-승조계의 정학이 장악한 북조에서 달마-혜가계는 상당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당대(唐代) 도선(道宣, 596~667)이 이들에 대한 자료가 기껏해야 행장(行狀) 정도만 전해짐을 안타까워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전기를 기록한 〈속고승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후대에 달마-혜가는 각각 선종(禪宗)의 초조(初祖)와 제이조(第二祖)로 추대되면서 다양한 전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고승전〉에 실린 달마, 혜가의 전기를 통하여 가장 원초적인 이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바다를 통하여 남월(南越, 현 廣東省 남부)에 도착하여 북상하여 북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위에 이르러 선법을 펼치자 "정법(定法)을 듣고는 많은 비방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정학의 세력에 의해 상당히 견제를 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육(道育)과 혜가(慧可)는 달마를 지극하게 섬겼는데, 전기에는 "처음으로 법장(法將)을 만나 도(道)에 귀의(歸依)할 바가 있음을 알고, 친히 달마를 모시기를 4, 5년이 지나도록 공양을 올리며 법을 묻자, 그 정성에 감동되어 진법(眞法)으로 가르쳤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법'은 바로 '이입사행(二入四行)'이며, 이는 〈속고승전〉에 간략하게 실려 있다.

달마의 전기 끝부분에는 "그 말과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시켰다. 달마는 자신의 나이가 150여 세라고 하였으며, 돌아다니며 교화함에 힘썼으므로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혜가의 전기에는 "달마가 낙수(洛水)의 물가에서 멸화(滅化)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달마는 결코 소림사(少林寺)에서 주석한 적이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불타선사를 위해서 창건된 소림사는 당시 바로 정학의 핵심이었는데, 정학의 무리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은 달마와 혜가가 소림사에 주석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달마 · 혜가, 선종 초조 이조 추대
정학이 장악한 북조서 핍박 당해

달마의 법을 계승한 이는 바로 혜가(僧可라고도 함)이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속성은 희(姬)씨이며 호뢰(虎牢, 현 河南省 滎陽) 출신이라고 한다. 그의 나이 40세에 하남에서 유행하던 달마를 만나 스승으로 받들며, 종지(宗旨)를 계승하여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일승(一乘)의 법을 수학하였다. 그 후에 달마가 낙수에서 멸화하자 혜가는 몸을 숨겼다고 한다. 이러한 전기의 표현에서도 정학의 무리들에 의한 핍박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그를 찾아와 법을 물었으며, 후에 동위(東魏) 천평(天平) 연간(534~537)에 신업(新鄴) 지방에서 비원(祕苑)을 열어 법을 설하자 많은 신도들과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그에 따라 당시 그 지방의 정학으로 유명한 도향(道恒)은 사람을 보내어 법을 듣게 하였는데, 오히려 혜가에게 감복되었다고 한다. 전기에 따르면, "도향은 마침내 깊은 원한을 품고, 혜가(승가)를 비방하고 괴롭히고, 세간의 관부에 뇌물을 주어 이치에 맞지도 않는 구실로 그를 해하려고 하였는데, (혜가는 그들에게) 애초에 하나의 원한도 없었는데도 그를 거의 죽을 지경에 몰아넣고, 도향의 무리들은 기뻐하였다."고 한다.



중국선종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달마.

이로부터 정학의 무리들에 의한 핍박이 상당히 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혜가가 "도적을 만나 팔을 잘렸다."는 구절이 나오고, 법림(法林) 역시 팔을 잘려 당시 사람들이 "무비림(無臂林)"이라고 칭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기사 역시 정학의 무리들에 의한 박해라고 추정되는데, 분소의(糞掃衣)를 걸치고 두타행(頭陀行)을 주로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둑들이 탐낼만한 재물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에서는 이후 신업 지방을 떠돌며 여러 해를 보내다가 사라졌으며, 그를 계승하는 뛰어난 제자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의 전기에는 향거사(向居士)와 법을 논한 편지가 실려 있다.

후대에 선종이 성립하면서 이와 같은 달마와 혜가에게 선종의 초조와 이조의 영예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전설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이 달마와 양무제(梁武帝)와의 문답이고, 달마가 광통율사(光統律師)와 보리유지(菩提流支)에 의해 여섯 차례에 걸쳐 독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혜가가 법을 구하기 위해 팔을 잘랐다는 단비구법(斷臂求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자료수집에 철저했던 도선이 이를 분명하게 언급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달마의 선사상은 바로 〈속고승전〉의 전기에 보이는 '이입사행(二入四行)'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도선은 "그 말과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에 기록된 '이입사행'은 바로 그 책으로부터 인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당대(唐代)에 정각(淨覺)이 찬술한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서는 달마의 저술로 〈약변대승입도사행(略辨大乘入道四行)〉이 있으며, 제자 담림(曇林)이 서문을 썼다고 하고, 또한 담림이 달마의 언행을 기록하여 1권으로 역었으며, 달마가 좌선하는 대중을 위하여 〈석능가요의(釋楞伽要義)〉 1권을 찬술하였고, 그에 따라 〈달마론(達摩論)〉 2권이 있지만, 세상에는 위조된 〈달마론〉 제3권이 유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달마-혜가계가 유행하던 당대

자교오종 통한 理入 · 行入이 핵심
달마 · 혜가 중국 선종 출현에 일익

에서는 달마의 이름을 가탁한 저술들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원초적인 달마의 선사상은 바로 〈속고승전〉의 전기에 기술된 내용이라고 하겠으며, 그를 통해 달마의 선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속고승전〉 달마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입사행'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심법(安心法)을 벽관(壁觀)이라고 한다. 〈중략〉 그러나 입도(入道)에는 방법이 많아도 핵심은 오직 두 가지뿐으로, 이(理)와 행(行)이다. 교에 의지하여 종지를 깨달아[藉教悟宗], 모든 중생들은 동일한 진성(眞性)임을 깊이 믿게 하는 것이다. 객진(客塵)이 가로막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가[捨僞歸真] 벽관에 응주(凝住)하면, 자(自) · 타(他)가 없고 범(凡) · 성(聖)이 평등하여 하나와 같다. 견고하게 머물러서 움직임이 없고, 다른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으며, 도와 명부[與道冥府]하여 적연무위(寂然無爲)함을 이입(理入)이라 칭하고, 행입(行入)은 사행(四行)으로 만행(萬行)이 함께 포섭된다."

이로부터 달마의 핵심적인 선사상을 도출할 수 있는데, 바로 '자교오종(藉教悟宗)'을 통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며, 이를 '안심'에 도달할 수 있는 '벽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벽관'을 좌선하여 '벽'을 관하는 것이라는 해석과 마음을 대상으로 벽과 같이 하여 관하는 응심(凝心), 간심(看心)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교오종'의 '교'는 바로 달마가 제자들에게 전수한 4권 본 〈능가경(楞伽經)〉의 교의(教義)를 의미한다. 〈능가경〉에서는 궁극적인 가르침을 '종통(宗通)'으로 설하는데, 달마가 말하는 '오종(悟宗)'의 '종'이 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언설(言說) · 문자(文字) · 망상(妄想)"을 원리(遠離)하기 때문에 후대에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교오종'을 통하여 '여도명부' · '적연무위'에 이르는 과정을 '이입'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이입'을 바탕으로 '행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입'은 바로 보원행(報怨行) · 수연행(隨緣行) · 무소구행(無所求行) · 칭법행(稱法行)의 '사행'이다. 이러한 '이입'과 '행입'은 이론과 실천으로 볼 수도 있으며,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어느 하나가 결여될 수 없다고 하겠다.

달마의 선사상은 사상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선에 본격적으로 '불성'과 '반야'를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입'에 있어서는 '불성'을, '행입'에 있어서는 비록 상론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반야'의 논리를 운용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이후 달마-혜가계의 능가종(楞伽宗)에서는 '불성'과 '반야'의 화회(和會)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틀을 형성하였고, 이후 중국의 모든 선사상은 이 틀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으니, 이러한 측면에서 선종의 동토 초조(初祖)로 추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후대에 불타-승조계의 소림사는 오히려 달마선사가 주석한 사찰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자료를 고찰하면 달마는 소림사에 다녀간 흔적이 없으며, 후대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에 불타-승조계는 거의 사라져 명맥조차 찾기 힘들지만, 달마-혜가계는 지속적으로 번성하였으며, 중국 선종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달마가 소림사에서 주석했다는 것은 아마도 '법의지쟁(法義之爭)'을 통하여 달마-혜가계가 불타-승조계를 사상적으로 대체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한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